



KB증권 연 7.2% able ELS 공모

KB증권은 12일까지 삼성전자 보통주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7.2%(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685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공모한다. 이를 포함해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681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 다운형)는 S&P500지수와 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최고 연 4.02%(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 TRUE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홍콩 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0914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연 5.4%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6.2%(연5.4%)의 수익이 지급된다.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대우 지수형 ELS 7종 등 총 10종

미래에셋대우는 연 4.4%에서 연 7.3%까지 다양한 구조의 지수형 ELS 7종 등 총 10종을 약 11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26196회 알리바바-엔비디아 스텝다운형 글로벌 ELS(고위험)'는 일반적인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구조의 ELS를 글로벌 우량종목을 기초자산으로해 만기 손실 시 해외주식을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투자업계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대우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만기 3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1%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수수료 감면서 환율우대까지 문턱 낮춘 해외주식투자

예탁원, 외화주식 118억弗 보관 1년세 31%, 3년세 2배 가량 늘어 증권사, 투자자 유치 이벤트 풍성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주식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거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전산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외화주식 보관 규모는 118억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90억달러)보다 31.3% 증가했고, 3년 전(63억달러)보다는 2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아마존 주가가 100% 이상 오르고, 넷플릭스는 올해만 80% 이상 오르는 등 해외주식 주가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다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가 간편해진 영향이다.

(주요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이벤트)

증권사	이벤트 내용	기간
대신증권	해외 증권계좌 신규개설 고객에 1년 동안 미국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연말
한국투자증권	해외 주식 첫 거래 고객을 상대로 최대 20만원까지 환율 우대	~연말
NH투자증권	미국주식 거래 최소수수료(10달러) 폐지	-
교보증권	미국주식 수수료 0.3%→0.15% 낮춤	~10월말
신한금융투자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한 고객이 외화매수 시 80% 우대환율	~11월말

각사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는 해외주식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각종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어 해외 주식 투자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우선 NH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미국 주식 거래 시 불던 최소수수료(10달러)를 폐지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거래시 수수료 0.25%(온라인 기준)를 적용한다. 하지만 최소수수료 기준 때문에 3000달러를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는 7.5달러가 아닌 10달러를 수수료로 내야했다. NH투자증권은 소액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은

이달 말까지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0.3%에서 0.15%로 낮춰주고 있다.

대신증권 역시 올해 연말까지 해외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거래 최소수수료를 평균 40.6% 인하하며 해외주식투자자 선점에 빠르게 나섰다.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증권사도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까지 해외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우대 환율을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달 말까지 8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 개선에 나서서 증권사도

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찌감치 미국, 일본, 홍콩, 상해 등 대부분의 국가 주식 거래에 있어 최소수수료를 폐지했다. 지난 8월부터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외 주식을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증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전 과정이 필요해 2~3일 동안 시간이 지연됐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시차 없이 곧바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키움증권 역시 내년을 목표로 해외주식 거래를 통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는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국가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또 다음 주부터는 해외주식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관련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해외 주식거래 수익 확대를 위해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연내 공공분양 1만여 가구 쏟아진다

인천 검단, 남양주 다산 등 주요 신도시·택지지구 공급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다. 특히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도 다산신도시, 구로 향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연말까지(10~12월)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9곳, 1만692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신도시 1개 단지, 1452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1개

단지, 878가구 ▲서울 구로 향동지구 2개 단지, 943가구 ▲하남 감일지구 2개 단지, 1662가구 ▲수원 고등지구 1개 단지, 4086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1개 단지, 647가구 ▲대구 연경지구 1개 단지, 1024가구 등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주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형사가 시공하는 민간참여가 늘면서 브랜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로는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첫번째 단지가 공급된다.

금호건설은 오는 11월 초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

럴' 74㎡·84㎡, 1452가구를 분양한다.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검단신도시의 최중심 입지로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2024년)이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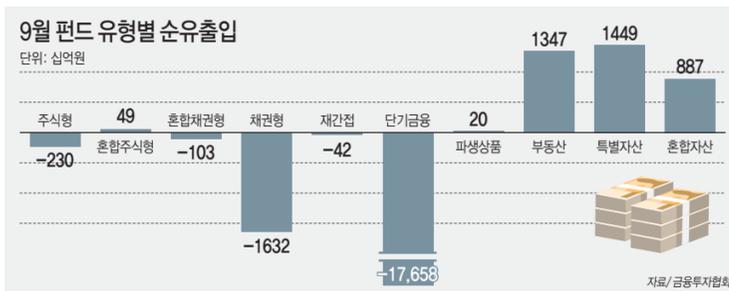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라면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오는 11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서 60~85㎡, 878가구를 분양한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멀지 않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외곽 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으로도 진입이 수월하다.

대우건설은 오는 11월 경기 수원시 고등지구에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59~

국내펀드 순자산 548조... 한달새 2.4% ↓

금투협, 9월 펀드시장 동향 분석 MMF에서만 17.7조 자금 순유출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보다 3000억원(0.3%) 줄어든 10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국내 채권형펀드 순자산이 2000억원 줄고 신용 시장 자금 유출로 해외 채권형펀드 순자산 역시 720억원 감소했다.

재간접펀드 순자산은 4000억원(1.3%) 감소한 28조2000억원, 파생상품 펀드 순자산은 830억원(0.2%) 늘어난 49

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의 높은 변동성으로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000억원(1.8%) 늘었다.

특별자산펀드 역시 순자산은 1조4000억원(2.2%) 늘어난 66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혼합자산펀드 순자산은 1조4000억원(6.7%) 증가한 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업지 기자

코람코자산신탁-롯데자산개발 주택임대사업 MOU

코람코자산신탁은 롯데자산개발과 10일 서울 중구 롯데자산개발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매입 또는 개발하는 임대주택사업에 롯데자산개발의 기업형 임대서비스 브랜드 '어바니얼'이 적용되어 임대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람코와 롯데자산개발은 첫 공동 프로젝트로 현재 코람코가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서 개발 중인 지하1층~지상17층, 총 208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선정했다. 오는 2019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며 이후 롯데자산개발이 임대와 운영을 맡는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김호지 기자 kmh@